

“나는 언제쯤 넘어갈 수 있나요” ... “그럼 지금 넘어가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 4월27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김정은 위원장〉

2018 말·말·말

성폭행 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괘념치 말거라” “지위로 위력행사한 바 없다”

사퇴 선언, 이웅열 코오롱 회장

“금수저 물고 있느라 이가 다 금이 간 듯하다”

신성일 떠나보낸 배우 엄앵란

“남편은 저승 가서 순두부 같은 여자 만나길”

올해도 감동과 기쁨, 슬픔과 분노를 자아내는 말들이 쏟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27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나는 언제쯤 (북측으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이내 “그럼 지금 넘어가 볼까요?”라고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초에 “나는 더 크고 강력한 핵 버튼이 있다”고 북한을 압박했으나, 9월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를 거론하며 “우리는 사랑에 빠져들었다”고 말했다. 국내외에서 화제를 모은 말을 모아봤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문재인 대통령, 1월18일 ‘검찰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관련 수사는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에 대한 입장서)

▲ “남북문제는 유리그릇 다루듯이 다뤄라”(문재인 대통령, 3월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면담하고 귀환한 대북특사단 보고를 받으며)

▲ “세월호 선장은 학생들에게 ‘배 안에 가만히 있으라’ 해놓고 자기는 내복 바람으로 탈출했다. 그 부끄러움과 분노 때문에 지금도 치가 떨린다”(이낙연 국무총리, 4월16일 제4회 국민안전대책대회 대회사에서)

▲ “나는 언제쯤 (북측으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문재인 대통령, 4월27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처음 만나. “그럼 지금 넘어가 볼까요?”(김정은 위원장))

▲ “해경공 김씨는 누구입니까?”(5월9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트윗을 다수 게시한 트위터 ‘해경공 김씨’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 씨라는 의혹과 관련한 일간지 광고에서)

▲ “고관대작 지내고 국회의원을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 추한 사생활로 더 이상 정계에 들 수 없는 사람, 국비로 세계 일주가 꿈인 사람, 카멜레온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변색하는 사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6월16일 대표직을 사퇴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내 일부 의원을 향해 마지막으로 막말을 하겠다고)

▲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노회화 전 정의당 의원, 7월23일 극단적 선택을 하며 남긴 유서에서)

▲ “내 지위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안희정 전 충남지사, 7월27일 ‘미투재판’ 결심공판 직후 진술서에서)

▲ “판문점의 봄이 평양의 가을로...이제는 정말 결실을 볼 때”(문재인 대통령, 9월18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평양 방문에서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부와 환담하며)

▲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말도 있으니 원한다면 한라산 구경도 시켜줄 수 있다”(문재인 대통령, 10월28일 출입기자들과 산행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 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하면서)

▲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영남, 자영업자에서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다. 이것은 ‘이영자(20대·영남·자영업자) 현상’(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11월20일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를 하락을 언급하며)

▲ “익숙함·관성과는 단호하게 결별하라.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고 옷깃을 여미자”(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11월26일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유주운 등 청와대 인사들의 잇따른 이탈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아마추어 무능 정부로 각인돼 있었는데 다행히 하나 더 불린다면 만취정권이라고 할 수 있겠다”(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11월27일 대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와대는 교만에 취하고, 비서관·경호원이 음주로 사고를 난 점 등을 지적하며)



“북으로도 한번 넘어가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 북측으로 넘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괘념치 말거라” “검찰은 한시라도 빨리 저를 소환해주시십시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도덕적 책임은 회피하지 않겠다. 다만 법적 책임은 잘 판단해주시기 바란다” “죄송하고 부끄럽다.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안희정 전 충남지사,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은 후 3~8월 사이 언론과 법원에 밝힌 심경)

▲ “인간 노무현 지키려다 바보 됐다”(윤장현 전 광주시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4억5천만 원을 사기당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12월5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착잡한 심경을 토로하며)

▲ “형님이니까 도와주세요”(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12월 4일 검찰 조사에서 수뢰 혐의로 8년간 달아난 친형 최규호 전 전 북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인정하며)

▲ “그동안 금수저를 물고 있느라 이가 다 금이 간 듯하다”(11월28일 경영 일선 사퇴를 전격 선언한 코오롱 이웅열 회장이)



성폭력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3월 2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3년간 코오롱그룹을 이끌어온 이웅열 회장이 지난 11월 28일 오전 서울 마곡동 코오롱원앤온리타워에서 퇴임을 발표한 후 임직원과 인사하며 눈물을 글썽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월 7일 경북 영천시 괴연동 성일사에서 열린 배우 고(故) 신성일 추도식에서 부인 엄앵란씨가 마이크를 잡고 참석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사실무근이라고 계속 설명하는데 고장 난 녹음기 같다는 생각이 든다”(8월20일 기자회견에서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여침할 전력수급과 전기요금에 탈원전과 관련이 없다고 계속 설명하는데도 일부 언론과 보수 야당이 탈원전 때문이라고 비판한다면서)

▲ “사랑하게 되면 마지막에 함께하게 될 것”(3월22일 금호타이어 인수를 추진한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의 차이웅현 회장이 금호타이어 노조의 협조를 기대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하면서)

▲ “(신성일은) 대문 밖의 남자 집안의 남자가 아니었다. 내가 존경할 만해서 55년을 살았지 흐물흐물하고 능수버들 같은 남자였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배우 엄앵란이 11월4일 남편 고(故) 신성일을 떠나보낸 뒤 빈소에서 취재진에 밝힌 소회)

2018-2019 신양파크호텔 겨울축제

기간: 2018.12.1(토) ▶ 2019.2.28(목)

축제 1 객실 겨울 패키지

객실 리모델링 기념

60% DC

축제 2 1층 레스토랑 “티파니” 감사축제

커피 3,000원

돈까스 코스 18,000원

안심스테이크 코스 50,000원

축제 3 신양파크호텔 사우나 이용권 증정

1층 티파니 이용고객 ₩15,000당

사우나 이용권 1매 증정

(연회장 및 조식 이용 고객 제외)

신양파크호텔 예약문의 ☎ (062)228-8000, 221-4101